

## 제 2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공모 당선작품소개

이 글은 당 협회가 86.7.5우유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 2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응모자 3,264편의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7편, 장려상 10편, 입선작 20편 등 총 40편으로 이번호에는佳作 3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 우리집은 우유 가족

김천 모암국민학교

6~1 박 병 건

4학년때 일이다.  
실과시간에 우유의 영양가에 대해서 공부했었

다. 선생님은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먹어야 소처럼

힘이 세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은 장난꾸러기 순구는 머리 위에 두 집게 손가락을 펴어 엮고 ‘엄무우’ 하면서 나를 떠받았고. 교실 안은 일시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선생님께 불러 나간 순구는

“선생님, 우유를 자꾸 먹으면 소처럼 뿔이 나면 어떡해요?”

하고 말했다. 교실은 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내가 우유를 받아먹게 된 것은 이때부터다.

우유에는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 주는 칼슘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좀 작은 편인데, 우유를 먹고 키가 크고 싶어서이다. 아빠는 내가 우유를 받아먹겠다고 하니

“우리 건이도 이제 건강을 생각할 줄 아는군.” 하시면서 신청서에 즉시 도장을 찍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동생 병규 때문에 큰 골치를 앓았다. 병규는 유아원 다닐 때부터 우유는 입에 대지도 않는 것이다. 우유를 먹으면 느끼하여 토할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한다. 엄마는 병규가 우유를 먹지 않아서 무척 걱정을 하셨다.

아빠는 ‘병규가 우유를 먹지 못하는 것은 아마 소띠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야’ 하시면서 농담을 하셨다.

사실, 우리집 식구는 이상하게도 병규를 제외하곤 모두 소띠이다. 엄마의 설명에 따르면 육십갑자 중 ‘축’ 자가 들어가면 소띠라고 하셨다. 아빠와 엄마는 38살 동갑으로 기축생이여서 소띠이다. 나는 음력 12월 10일에 태어났는데 음력으로치면 계축생이 되어 소띠가 되고 양력으로로는 갑인생이 되어 범띠가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다른땀 범띠를 찾지만, 가족 속에선 항상 소띠가 된다. 어른들은 나의 띠를 음력으로 치는 것이다. 병규는 지금 4학년이니까 병진생으로서 용띠이고 1학년짜리 미라는 기미생으로서 염소띠인데, 우리 집에서는 염소도 소의 일종이라며 소띠 속에 포함시킨다.

아빠는 가끔 우리 가족은 모두 소이기 때문에 소의 젖인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하신다. 그리고, 소처럼 튼튼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할때면 병규는

“체, 나는 용띠니까 우유는 안먹어도 된다 용은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소보다 낫다.”라고 하며 우겼다.

엄마는 용도 우유를 많이 먹어야 힘이 세어서 이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시며 병규에게 우유를 받아 먹으라고 하신다. 병규는 그래도 우유는 못 먹겠다고 한다.

아빠와 엄마는 우유를 먹으면 용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병규는 막 무가내였다. 엄마는 병규에게 우유 맛을 들일려고 무척 애를 쓰셨다. 병규 몰래 음식물예다 우유를 조금씩 넣기도 하고 숟봉에다 우유를 타시기도 하였다. 아빠는 텔레비전에서 권투 중계를 할 때, 우리 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보다 마지막에가서 체력이 딸리는 것은 어렸을 때 우유를 먹지 않아서 그렇다고 병규에게 설명해 주신다. 나도 병규가 우유를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 가족의 이러한 노력 끝에 병규는 마침내 우유를 먹게 되었다. 병규가 우유를 먹은지 넉달이 넘었는데, 병규 얼굴은 전보다 윤이 나는 것 같았다. 키도 한 뼘은 더 커진것 같다. 나는 병규가 우유 마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은 우유를 마시면서 살아간다. 아빠는 학교에서 ‘××우유’를, 엄마는 집에서 ‘□□우유’를 마시고, 우리 삼남매는 학교에서 ‘○○우유’를 마신다. 빈 통은 꼬마 미라에게 모여진다. 미라는 딱지를 접어서 뒷집 윤태와 즐겁게 딱지 놀이를 한다. 어떤 땀 저금통도 만들어서 저금도 한다.

우유는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

# 나의 건강과 우유

영주동부국민학교  
6~5 권 기 환

“무슨 아이가 그리 약하니.”

내가 눈을 뜨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 보니 나는 학교 체육시간에 쓰러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교에 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이렇게 4학년때까지 몸이 약했다. 학교에서도 조금만 심한 운동을 하면 쓰러지기가 일쑤였고, 아이들과 놀다가도 코피가 자주 났다.

그날 저녁때의 일이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럼, 기환이를 한약이나 먹여 보구려.”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한약을 먹기 시작했다. 한약의 맛은 무척 썼다.

나는 먹기 싫은 한약을 한달 동안 겨우 다 먹었다.

그러나 몸은 한약을 먹기 전과 같았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먹이면 나올까? 하고 생각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 친구가 집에 놀러 오셨다. 오셔서 어머니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다 어머니께서

“우리 기환이가 무척 약한데 무엇을 먹이면 나올까?”

하고 걱정하시자 어머니 친구께서

“그럼 우유를 한번 먹여 봐. 우리 아이도 우

유를 먹여 보았더니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하던데.” 하시자 어머니께서는

“우유를 먹이면 괜찮아질까?”

말씀하시며 무척 걱정하셨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우유를 먹여 보라는 어머니 친구의 말씀에 놀랐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나는 우유를 한번도 마셔보지 못하였다.

다음날부터 집에서 우유를 1개 마시고 학교에서 1개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우유를 마시고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기환아. 우유를 그만 먹자.”

하시는데 나는

“왜요?”

하고 여쭙었다. 어머니께서는

“우유를 먹기 시작한지 1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말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나는

“우유를 계속 마실게요. 우유를 마시니 전보다 소화도 더 잘되고 기분이 더 상쾌해지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를 2~3달만 더 마셔 보아라.”

웃으시며 하는 말씀에 나는 뿔도록 기뻐다.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지 벌써 석달이 지났다.

이제 나는 코피도 흘리지 않고 아무리 심한 운동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으니 나는 한없이 기쁘다.

불과 몇 달 전에 나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이것이 다 우유, 우유의 덕택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우유가 한없이 고맷다.

4학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나는 지금 이렇게 그때의 고마운 우유를 마시고 있다.

## ‘고맙다. 우유야!’

서울 세곡국민학교  
6학년 석 갑 인

“쟁그랑”

갑자기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에 깜짝놀라 부엌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어머,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엄마걱정 말고 하던 것이나 마저 해라.”

어머니께서는 몸도 약하신 데다가 빈혈 때문에 쓰러지시는 일이 가끔 있었읍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 탓인지 더욱 더 빈혈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엄마, 깨어진 조각들은 제가 치울게요. 좀 쉬세요.”

깨어진 조각들을 치우고자 하자니,

“딩동딩동”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조심스레 문을 열자 모습을 나타내는 작은 이모는

“아유, 더워! 왜 이리 문을 늦게여니?”

하시며, 무척이나 더우신듯 땀에 젖은 몸으로 들어오셨읍니다.

그런데, 이모께서는 누워계신 어머니를 보시고는 놀라셨는지 수다스럽게 이것 저것을 물으

시다가 약을 사러 간다 하시며 일어나셨읍니다.

그러나 약을 먹고 있다는 말씀에 이모는 앉으셔서 다시 말을 이으셨읍니다.

“그럼, 언니! 우유를 꾸준히 먹어봐요. 언니는 속이 나빠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난 우유도 잘 맞지 않던데...”

“아따,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약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어봐요. 알았지요!”

“그래, 알았다.”

이모가 다녀 가신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는 매일 작은 우유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지게 되었읍니다.

처음에는 이모의 말씀처럼 우유를 반 컵도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께서는 쓰디쓴 한약을 잡수시듯 눈을 꼭 감고 드셨읍니다.

“허허허.....”

“하하하.....”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우리 가족들은 모두 한바탕 웃어버렸지만, 다섯 달 가량 지난 지금은 어머니는 물론, 우리 집 가족들은 모두가 우유를 하나씩 먹게 되었읍니다.

우유를 드시는 어머니께서 날이 갈수록 혈색

도 좋아지시고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일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셨다.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재잘거리고 있는 나를 보신 선생님께서는  
“어머, 갑인이는 이제 아기돼지가 다 되었네!”  
라고 하셨습니다.

“하하하…….”

“그래,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니?”

“우유요 우유!”

나의 대답을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마침, 잘 되었다고 하시며, 체육을 하러 나가자고 졸라대는 아이들에게 오늘은 너무 더워서 안 된다고 하시며, 우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아이…….”

처음에는 실망한 듯한 아이였지만, 토끼들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젖소의 젖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사람이 왜 소의 젖을 먹느냐고도 하겠지만, 우유에는 12가지 정도의 영양가가 들어있어 자라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하단다. 예를 들어 보면, 서양사람들은 식사 때에나 간식 때 다른 음료수를 먹지 않고 우유를 꼭 먹거든. 그래서, 우리들 보다는 모두들 큰 거야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게 하기도 하구!”

“어! 그럼, 우유를 많이 먹으면 시험때 공부

안해도 되겠네.”

말썰꾸러기 대현이의 말에 모두들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계속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공부를 안하면 젖소에서 우유를 빼는 것과 같지 않니?”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이 결정되자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학교나 단체에 우유를 많이 권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송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우유를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야. 선생님 말 알겠니?”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유를 먹는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한편, 젖소와 송아지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찮은 동물인 젖소도 이렇게 이로운 일을 하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하지?’

그래, 선생님 말씀대로 우유를 많이 먹고 튼튼히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따라 유난히 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고 소 모양의 구름마저도 우리들을 내려다보며 웃는 듯 합니다.

‘정말 고맙다. 우유야!’

**힘찬도약!**

**굳건한 단결!**

**영원한 전진!**